

1분기 가계대출 증가 역대 최고치 기록

1~3월 기준으로 9조9000억원 늘어 마이너스 통장 등 이용 늘었기 때문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단대출 증가세가 크게 꺾이지 않고 있는 데다 신규분양 등으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도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3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말 기준 649조원으로 전월대비 4조 9000억원 증가했다.

1~3월 기준으로는 모두 9조9000억원이 늘어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1분기중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종전 최대 증가치는 지난해 1분기 9조7000억원이었다.

1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9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11조6000억원)보다 줄었지만, 기타대출 증가액이 지난해 1분기 1조8000억원에서 올 1분기 2000억원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것이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4조4000억원 증가해 전월(2조8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3월 증가폭 중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달(4조8000억원)에 비해서는 다소 줄긴 했지만 2010~2014년 3월 평균 증가액(1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

은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분양 호조 등으로 집단대출 증가세가 이어졌고, 봄 이사철을 맞아 주택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3월 서울아파트 거래량은 7100호로 전월(5000호)보다 증가했다.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기타 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5000억원으로 전월(3000억원)보다 확대된 증가폭을 보였다.

윤대혁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과장은 "3월 분양량 등이 증가하면서 계약금 마련 등으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은행 기업대출은 증가세가 꺾였다. 지난달 은행권 기업대출은 7000억원 증가한 734조원으로 전월(2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1분기 증가액은 10조원으로 지난해 1분기(15조8000억원)보다 줄었다.

중소기업 대출은 1분기 9조4000억원 증가했으나 대기업 대출이 6000억원 증가에 그친 영향이다.

대기업의 대출의 경우 지난해 2조5000억원 줄어 아예 감소세로 전환됐다. 일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과 분기말 부채비율 관리 등으로 증가액이 감소한 것으

로 풀이했다.

3월 은행 수신은 3조3000억원 늘어 전월(13조4000억원)보다 증가세가 축소됐다.

수시입출식예금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등을 위한 자금 확보로 7조8000억원 증가했지만 정기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가 각각 3조원, 1조3000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분기말 금융기관의

자금인출 등으로 전월보다 11조1000억원 줄면서 감소세로 전환됐다. 특히 미니펀드(MMF)의 경우 13조2000억원 감소해 하락폭이 컸다.

한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월 중순 이후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지연 기대감 등이 커지면서 1.4%까지 하락했다가 이달들어 다시 1.49%(15일 기준)로 올라갔다.

/인진수 기자



차세대 방송 핵심 기술 시연 삼성전자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방송 기자재 전문 박람회인 NAB Show(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Show)에서 차세대 UHD 방송을 위한 핵심 기술을 선보였다.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장 공개 채용

금융감독원이 국장급인 IT·금융정보보호단장을 공개 채용한다.

금융감독원은 IT·금융정보보호단장을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새로 영입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IT·금융정보보호단장은 IT와 전자금융 관련 제도와 전자금융업 인허가, 금융전산 부문 비상사태 대응, 핀테크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한다.

외부에서 영입한 금감원 국장급의 경우 최초 2년 계약을 보장하고, 이후에는 정기 인사 때 보직에 임명되는 방식으로 기간을 연장하게 된다.

현재 직위를 맡고 있는 김유미 선임국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5월초에 사임하게 되면서, 새로 단장을 공개하게 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지원자는 금감원 인사관리규정 제70조의 자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금융회사·금융관계기관·학계에서 1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날 오후 1시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해 이메일(irs@fss.or.kr)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

27일 서류 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28일 면접을 진행해 5월 초에서 중순 사이 최종 임용을 결정한다. 신임 단장 채용 기간에 공석이 되는 경우에는 부국장이 임시로 업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인진수 기자

카카오증권, 이용자에게 주식 증정

카카오뱅크 연동 증권서비스 '카카오증권'이 이용자들에게 주식을 증정한다.

핀테크기업 두나무는 카카오증권 출범을 기념해 2만원 상당의 코덱스(KODEX) 코스피 1주 증정 이벤트를 5월 1일까지 연다고 18일 밝혔다.

카카오증권 앱 최신 버전을 설치한 후 관심 종목을 1개 이상 등록하면 자동으로 응모가 완료된다. 당첨자 1000명은 5월 6일 카카오증권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덱스 코스피는 삼성자산운용이 운용하는 ETF(상장지수펀드)다.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 전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 수익률을 추적해 투자신평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송치형 두나무 대표는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카카오증권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투자를 하게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증권은 주식 정보부터 거래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바일 증권 앱이다. 자신의 투자 실력을 겨루고, 고수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소셜 기능으로 인기를 끌었다. 원래 '증권플러스 for kakao'란 이름으로 서비스됐지만 지난해 공식 명칭을 카카오증권으로 바꾸고 카카오와의 전략적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진수 기자

헬로tv, 스포츠 경기 5개까지 동시감상 서비스

CI헬로비전의 디지털케이블방송 '헬로tv'가 스포츠 경기를 최대 5개까지 동시 감상하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멀티뷰는 MBC스포츠플러스, KBS 스포츠, SBS스포츠, 스포츠, SPTV 등의 실시간 방송을 분할 화면으로 모아 한 스크린에 띄운다.

가입자들은 별도의 기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멀티뷰를 이용할 수 있다. 채널 500번을 입력하거나 리모컨에 있는 빨간 버튼을 눌러도 서비스가 자동으로 실행된다. 다만 멀티뷰 화면에서는 현재 활성화된 한 개 채널의 소리만 들을 수 있다. 양재웅 CI헬로비전 영업·마케팅 담당은 "업계 최초 클라우드로 방식을 도입해 오래된 TV나 셋톱박스에서도 멀티뷰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이통3사, 주파수 경매 '경쟁'

동시오픈과 밀봉입찰 혼합방식으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통신 3사가 최저경매가격인 2조5000억원이 넘는 주파수 경매에 출사표를 던진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이날 오후 2~4시 사이 이통통신용 주파수 할당신청 접수장을 제출한다. 미래부는 사업자 적격 심사를 거쳐 이달말 경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경매는 동시오픈입찰(50라운드)과 밀봉입찰 혼합 방식으로 진행한다. 50라운드(낙찰과정)까지 동시오픈입찰을 진행해도 낙찰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단 한 차례 입찰금액을 제시하는 밀봉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입찰서 작성·제출 제한 시간은 동시오픈입찰 40분(라운드당), 밀봉입찰 4시간이다.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된다면 낙찰까지 8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매 주파수 경매 대역은 700MHz(40

MHz 폭), 1.8GHz(20MHz 폭), 2.1GHz(20MHz 폭), 2.6GHz(40MHz 폭 및 20MHz 폭) 등 총 140MHz로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 시행 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통3사가 LTE 서비스를 위한 전국망을 이미 구축해 2011년 경매처럼 과잉 경쟁에 내설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중론이다.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2.1GHz 대역 20MHz 폭도 낙찰가격이 SK텔레콤과 KT에 대한 40MHz 재할당 대가와 연동돼 과감한 배팅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도 '입찰증분'을 2013년 경매 수준인 0.75%로 결정하는 한편 광대역 제한 낙찰총량 제한(최대 60MHz), 투자 의무 강화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사실상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미래부는 주파수 대역 목적을 막기 위해 700MHz와 2.6GHz 등 광대역(40MHz 폭) 2개, 인접대역과 광대역화가 가능한 2.1GHz 대역(20MHz)은 사업자별로 1개 이상 할당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인진수 기자

보안카드·OTP 없어도

하반기부터 편하게 자동이체

올해 하반기부터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없이도 자동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비대면 본인 인증 수단으로 바이오인증과 휴대전화인증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자금 이체 시 보안카드와 OTP 사용 의무를 폐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변경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포통장 범죄와 관련된 전화번호가 이용증자됐을 경우 해당 번호의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대포통장과 관련된 전화번호의 이용증자를 요청하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용금지 명령을 내린다.

앞으로는 해당 번호의 이용자가 이용금지 통지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증자가 해제된다.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최소 자본금 문턱도 낮아진다.

현재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자본금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과 결제대금예치업(에스크로)의 경우 10억원, 전자고지결제업(지로)은 5억원이다.

금융위는 이를 3억원으로 변경하고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기준은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 30억원 이하로 규정했다. 추심이체 출금등의 방식도 다양해진다.

금융위는 서면, ARS 등의 현행 추심이체 출금등의 수단에 전자문서를 추가한다.

/인진수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